

제3호

춘천

聖市新聞

감사의 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큰비 늦은비를 작당한 때
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
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
을것이요.

(신명기 11:14)

발행·인쇄인:조남진 편집인:조충환 (200-091)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0361)256-1260-1 FAX(0361)257-1260

춘천 기독교 연합회 총회 개최



춘천기독교 연합회는 98년 10월 23일 오전11시 성광장로교회당에서 윤철중 회장(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사회로 총회를 개최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칙 개정제에 이어 임원을 개선했다.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는 예배설교에서 「연합만이 살길」이라는 말씀으로 모든 교회 목사와 장로들의 연합을 역설하였다. 미국도 존립을 위해 아메리카 공동체로 연합하였다며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존립은 연합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CBS 춘천방송국 유치와 성시화운동으로 연합하였던 사례들을 들었으며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 하여 온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연합의 아름다운 꽃으로 춘천을 복음화하자고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1년간 춘천기독교 연합회를 이끌어갈 임원으로 선출된 분

들은 회장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부회장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 김주환 목사(순복음 춘천교회), 유태희 장로(장로 연합회장), 총무 한 군 목사(평화감리교회), 최종인 장로(순복음 춘천교회), 서기 조영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박인관 목사(광명감리교회), 회계 이영일 장로(석사감리교회), 박상만 장로(동부장로교회), 감사 정상교 목사(생발침례교회), 한주석 장로(광장감리교회)이다. 김광국회장(성광장로교회 목사)사회로 사업계획 등 회무처리를 하고 은혜 중에 총회를 폐회하였다.

이제 제2기의 출범을 시작한 춘천기독교 연합회는 온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진정한 연합회로서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에 건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성도들은 바라고 있다.

10102486 콘서트에서 파송받은 청소년사역자들

11월 7일 춘천시립문화관에서 열린 "10102486 콘서트"는 강원청소년 선교회와 예수사람운동이 공동주관하고 CBS, 기독교문, 성시화운동본부, 베드로정형외과, 예목단이 후원하여 춘천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천국 잔치였다.

"10102486"이란 청소년들이 삐삐를 주고 받을때 쓰는 말로써 "열렬히 사랑해"란 말인데 예수그리스도께서 청소년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의도로 콘서트에 붙여진 타이틀이다. 이번 행사의 타이틀은 콘서트이지만 그 내용은 전도집회요, 부흥집회였다.

민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전도의 기회로 믿는 청소년들에게는 전도의 비전을 심어주고 영적 회복을 위한 부흥집회의 기회가 되었다.

14개 중·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예수사람운동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였다는데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미국 대학생 가

요세 대상 출신인 오형아와 C.C.M 계에 떠오르는 여성 4중창 LOVE의 열렬한 연주는 청소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남춘천 감리교회의 오병이어 찬양팀이 오프닝을 맡아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했으며, 이들의 헌신은 선교단체와 교회에 좋은 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LOVE와 오형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와 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었다.

박상철 목사의 메시지에 150여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푸른 찬양 팀의 초청으로 무대위에 오른 청소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 주었을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 그들의 95%가 가정과 학교에 예수님의 증거자로 파송을 받았다.

"10102486"콘서트는 이날 끝마친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자들에 의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계속 되어 학교 복

음화와 춘천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콘서트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풍년 농사 감사예배 드리는 농협 (창세기 13:14-18)

(98년 10월 22일 한글 목사(평화감리교회) 설교 요약)

21세기에는 식량난이 대두 될 것입니다. 활력 있는 농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농 사는 불가능 합니다. 강된 농 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는 농협이 되기를 원합니다.

•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혈육 관계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 함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 었으나 롯은 욕심으로 혈육관 계를 저버리고 좋은 땅을 선택 하였습니 다. 롯은 욕심이 많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 롯과 같이 물욕에 젖은 신앙인 이 많습니다. 물욕을 가지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아브라

함과 같이 물욕을 이기고 영적 인 신앙을 가지면 영육의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롯과 같이 물욕 때문에 하나 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신앙 인들을 보게됩니다. 성경은 탐 심은 우상숭배니라(골3:5)고 하였습니 다.

• 롯을 떠난 아브라함은 복 을 받았습니 다.

롯을 떠났다는 것은 육적인 욕심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 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 다. 우리도 물욕 을 떠나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 으로 모시고 살면 세계 일류국 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 론 르브 갓내살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미친 왕이 되

어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 습니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 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 다. 오늘 내게 가진 것이 없으 지라도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 고 살면 모든것을 채워 주십 니 다.

• 미래를 향해 눈을 뜨는 사 람

성령을 받으면 미래가 열리 고 담배해집니다. 하나님을 주 인으로 모신 우리민족은 세계 를 복복게 할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

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 였습니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행함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느헤미야는 부지 런하여 성벽공사를 완성하였 습니 다. 부지런히 일하는 그리 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1퍼센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농협의 모든 직원들이 땅의 주 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미래가 열리고 풍년농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교인들의 일상대화 가운데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불러도 되는지요?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

'안식일(Sabbath)'은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가장 초기부터 안식의 날로 준수한 일곱 번째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새 날의 출발을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계산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때부터 시작 합니다.(느 13:19)

구약의 안식일 규정 목적은 주로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삼는데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았습니 다.(출 20:10, 23:12, 신 25:13~14)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 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율법 해석자들과 안식일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주일(Lord's day)'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배일로 첫 번째 날(제 1:10)입니다. 안식 후 첫 날에 행한 기독교인 예배는(행 20:7, 고전 16:2) 그

날 새벽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출발합니다.(마 28:1, 막 16:2,9 눅 24:1, 요 20:1,19)

초기 기독교 인들은 처음에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으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일주일의 첫 날(부활한 날)과 성령 강림하신 날을 생활의 가장 복된 날로 여겨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행 2:1), 그 날을 '주의날'이라 칭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독교인 들은 주의 날에만 모여 예배하 였고, 안식일 예배는 점차 사라져 갔습니 다.

이같이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므로 '주일'을 '안식일'로 불러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을 볼 것이 아니라, 주일 즉 '주의 날' 입장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용어들을 신약의 입장에서 다시 정립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구약에서 나오는 '번제'를 비롯한 '제사'라는 말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예배'라는 말로 '제사장'은 목사라는 말로 바꾸어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원소식 중에서, 황병찬 성시신문 위원)

성서에 나오는 「세마포」 (마27:59)

예수님을 장사하기 전에 감 았던 고온 배를 우리 성경에는 세마포(細麻布)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 성서에서는 Linen Sheet 또는 Flax Sheer(아마포)로 기록 되어 있고, 일어 성서에서는 바로 亞麻布로 쓰여져 있다.

아마는 오랜 인류의 작물용 섬유로서 예수님 당시에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삼(大麻), 기타 섬유작물의 제배기록은 없으며, 타올, 네프킨, 그물, 줄자, 돛, 깃발 등 다양 하게 이용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고(最古)의 미이라

는 아마포로 싸여졌으며 회랍과 히브리인들의 시체를 감싸는데 아마포를 사용하였다.

사원의 사제(司祭)는 아마포 이외의 의복을 입는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울(Wool)과 아마의 혼방을 입는 것도 금하였다고 한다.

당시 아마포는 품질에 따라 대량 3종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아마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먼저 재배된 섬유작물의 하나였다. 아마(Linum usitatissimum L.)는 초장이 30-120cm정도로 1본의 가는 철사와 같은

직립경(直立莖)으로 담록색의 피침상엽을 착상하고 꽃은 보라색(혹은 백색)으로 경정에서 거의 1cm간격으로 핀다.

또한 아마에는 종실용(種實用) 아마도 있는데 그 종실로 기름을 짜서(亞麻仁油) 공업 용으로 이용되고 유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한다.

구약시대에는 아마작물의 부작(不作)은 神罰의 하나로 기재되었다.(호세아 2:9)

아마로서 아마포를 제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의 부인들의 수(手)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동원소식중에서)

배우자를 성공시키는 후원자가 되라

가정의 성공은 혼자서 복되고 장고치는 '독주곡'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합주곡'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일러낸 성공은 두사람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신 이유도 결국은 서로 돕기 위해서 입니다. 성경에서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 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상대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성공을 돕는 10 가지 방법

첫째, 항상 적극적인 말을 사용한다.

둘째, 가정을 참된 휴식이 있는 쉼터로 가꾼다.

셋째, 배우자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존중한다.

넷째, 자녀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높여준다.

다섯째, 배우자의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을 써준다.

여섯째, 배우자에게 돈타령을 하지 않는다.

일곱째, 배우자가 사소한 일로 걱정하지 않게 배려한다.

여덟째, 배우자를 철썩 같

이 믿고 있다고 말해준다.

아홉째, 배우자의 취미활동과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열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위의 열가지 지혜를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눈길이 닿을때마다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 메모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메모 자체가 배우자의 성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동원소식중에서)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비전 삼진법



김동성 목사
분당 불꽃감리교회 담임

•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

우리가 비전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려면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돌아볼 일들이 있다.

먼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가? 우리가 우리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 당신의 생애속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들의 성질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만일 당신의 문제가 본질상 동일하고 언제나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당신은 정말 그 원인을 해결해온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강

하게 나의 감정을 표출시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영아래 살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규명해 보도록 노력하라.

둘째 우리는 우리의 내적 욕구를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당신의 생애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내적 욕구를 아는 사람이다. 내적 욕구를 알으로써 당신은 잠재력의 발휘에 이르게 된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안파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의 개인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그 땅을 갖기 위해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당신은 의지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당신의 유익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가?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선용하는가?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

게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엡 3:20)임을 믿어야 한다.

II. 말하는 단계 - 믿음의 언어

히브리서 11장은 능동적이고 신앙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13절에는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를 요약적으로 묘사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은 약속을 보았다. 이것이 보는 신앙이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하기를 토는 말하기를 자신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했다. 이것이 말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라
말하는 신앙에는 다시 네 단계가 있다. 당신은 내적 신념을 어떻게 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첫째, 당신에게 당신이 믿은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

요하다. 수많은 위대한 꿈들이,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공포하려는 자신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나 혹은 우리의 계획이 불확실할 때면 침묵으로 일관한다. 우리의 체면을 지키려고 말하지 않는다.

둘째, 말하는 것은 헌신을 요구한다. 수많은 위대한 꿈들은 역시 그 꿈의 소유자들이 그것을 헌신적으로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내적인 소망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헌신을 볼 때 따를 수 있다. 사람들은 꿈으로 불타오르고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직접 목격할 때 비로소 그리로 인도되어진다. 헌신은 전파하는 특성이 있다. 사람들은 오직 당신을 사로잡았던 그것만을 취할 것이다.

셋째 단계를 말하는 신앙은 훌륭한 의사소통이다. 위대한 많은 꿈들이 그 꿈의 소유자들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사라져 버리고 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의 학

습에는 듣기, 토의 관찰 및 발견, 참여라는 네가지 방법이 있다. 참여학습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당신은 당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당신은 효율적으로 당신의 꿈을 그들과 소통할 수 없다.

자, 이번에 말하는 신앙의 네 번째 단계를 말하자면, 이것은 확실하다. 수많은 훌륭한 꿈들만 사람들의 확신의 결여로 사라진다. 그런데 헌신과 확신에는 차이점이 있다. 헌신은 상황이 험해질 때에나 자신이 계속 추진하게 해 준다. 반면, 확신은 상황이 험해질 때에 다른 사람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감정 즉 우리의 확신에 의해 사기가 진작되고 동기가 유발된다. 사람들은 보통 지도자의 인격을 보고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가진 확신을 보고 따른다. 사람들은 옮기 때문에 일을 행하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

(예레미야 5장 1~6절 전회중 목사 설교요약)



전 회 중 부목사
순복음 춘천교회

• 춘천성시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고로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믿음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사람을 찾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교회 고등부 학생이 사관학교에 가려면 세번 합격해야 (필기, 면접, 수능)한다며 세번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번 시험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배성이 되고, 믿음으로 행하여 속복받는 배성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행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되

고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물질 모든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았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렵고 어려운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도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의인 열 사람을 찾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응답할 때 나를 쓰실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부터 새롭게 결

단하고 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면 춘천성시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인공은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찬송 간중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격식보다 먼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자들은 신본, 교파, 명예를 초월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므로 성령 역사가 일어났 것입니다.

우리모두 예수 안에서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므로 춘천성시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조선하 기자)



'98 10월 14일(수) 비전 126 성시화 기도모임 방문예배

교계뉴스



동춘천교회 헌당예배

동춘천 감리교회는 오랜 숙원이던 성전을 완공하고 각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9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헌당(임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후 잔치를 배설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체험하였다.

춘천시 석사동 732-2번지 116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200평(지하1 지상3층)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으며 이는 지상에서 가장 값진 또 하나의 건축물

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이며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도를 위해 전력으로 경주하고 나아가 춘천도성을 성시화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부흥 발전하기를 춘천의 모든 성도들은 기대하고 있다.

(황병찬 권사, 성시신문위원)

제12회 춘천연합성가제

월드비전(World Vision) 춘천지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춘천 연합성가제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98년 11월 14일 오후 7시 8개 교회의 성가대가 차례로 출연하여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천여명의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주었다.

한국선교회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찬양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교회 음악 향상으로 교회와 기독교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연합 성가제로 음악 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회 연합성가제부터 출연을 희망하는 교회가 많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영동·영서지역 연합성가제를 운영하므로 강원도 전지역에서 연합성가제제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출연한 교회 성가대를 보면 춘천중앙감리교회 시온 성가대(지휘 이영진 반주 홍승희)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 하늘의 주, 를 연주하였고 춘천 성

광장로교회 시온 성가대(지휘 이상조 반주 이해지)의 기도, 주님사랑 전하리.

춘천제일감리교회 천성 성가대(지휘 이병희 반주 이보열)의 주님의 영광, 축제의 찬양, 춘천제일장로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지휘 김성용 반주 박현주)의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셨도다.

춘천 중앙성결교회 시온성가대(지휘 김인수 반주 최정주)의 어이하오리까, 찬양의 안티폰, 남춘천 감리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지휘 박찬훈 반주 심에경)의 축복, 주 찬양해 할렐루야, 춘천석사감리교회 연합성가대(지휘 김철수 반주 심선미)의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죽임당하신 어린양 아멘, 이란 주옥같은 천사들의 합창을 들려주었으며, 특별, 찬조 출연한 월드비전 춘천어린이 합창단(지휘 신현택 반주 이성란)의 하늘가는 밝은 길이, 다 일어나 찬양하리, 흥천 회망 장로교회 예·답 성가대

(지휘 안동은 반주 박해원)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께서 주신 하늘 노래는 연합성가제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했다.

오늘의 연합성가제가 자손만대까지

이어지고 발전되어 교회음악이 세속음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독교 음악의 꽃을 피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교회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영광한의의원

원 장 이 용 규 정로

침술과 의술 그리고 기도로 치료하는
장로님 한의사가 정성을 다하는 의원입니다.

춘천시 후평동 801-2(주공4단지 입구4거리)
☎ (0361) 251-2004

어린이회관 디너레스토랑

• 우거지갈비탕	5,500원
• 스페셜정식	12,000원
• 디너정식	6,500원
• 어린이정식	6,500원
• 할박스테이크	7,000원
• 비우까스	7,000원
• 안심스테이크	16,000원
• 폭크찜	8,000원
• 돈까스	6,000원
• 생선후라이	6,000원
• 어린이돈까스	3,500원

춘천시 411동 223-2 (어린이회관 내) ☎ (0361) 257-6533

교계뉴스

행사

진주문 장로교회 조남호 목사

• 진주문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1일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강원대학 정문 다층 칼국수 식당에서 사랑나눔기 음식 바자회를 열었으며 이익금 전액을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 97년 11월 5일 제1회 음식바자회에서는 4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 여선교회에서(회장 채순님 집사)는 월2회 지암리 "나눔의 집"을 방문 정신 박약아와 노인들(30명)을 대상으로 목요일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성산장로교회 김동부 목사

• 10월 25일 저녁 7시 30분 성산교회당에서 KBS TV 탈렌트 김창봉 집사의 「빌라도의 고백」이란 모노드라마 공연이 있었으며 동참한 여러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 10월 29일 성도들의 가족중 65세 이상된 분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온천욕을 실시하였다.

동부장로교회 임신영 목사

• 의류바자회-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의류바자회를 위하여 헌옷과 새옷을 수집하는데 전교인참여를 바라고 있다.

우두감리교회 김영원 목사

• 11월 22일 주일 추수감사예배를 계획하고 전교인은 11월 첫주부터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 가을 성령 찬양 대성회-11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 윤옥남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열어 성도들은 은혜충만을 체험하였다.

• 찬양 선교단 군부대 찬양-교회찬양 선교단은 11월 1일밤 5연대 3대대 사랑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남춘천감리교회 유진형 목사

• 심령대 부흥 성회-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본교회당에서 경기도 부천 송내중앙교회 김중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령은사 신유, 축복, 부흥성회를 갖는다.

• 오형아 콘서트 협연-11월 7일 춘천시민 회관에서 열리는 강원 청소년 선교회 주최 콘서트에 본교회 오병이어 찬양단이 협연하였다.

• 연말행사 계획-11월 22일 추수감사예배, 12월 29일 각부서 총회, 12월 6일 세례예식, 12월 31일 속 조직편성 발표, 12월 20일 당회, 12월 25일 성탄예배, 12월 30일 구역회가 있다.

춘천제일장로교회 박상원 목사

• 11월 8일 2부 예배시 학습-세례

11월 15일 추수감사예배, 11월 22일 예배후 공동의회에서 장로5명, 안수집사 5명, 권사 7명을 피택, 선출하여 11월 26일 정채당회를 갖는다.

• 11월 22일 오후 7시 부터 25일까지 박중옥목사 김영철 목사 황재환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심령부흥대성회를 갖는다.

동원감리교회 정상문 목사

• 11월 3일 오후 3시 속강 및 임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3일 4일 24속 위속을 대심방하였다.

• 11월 15일 오후 2시 본교회에서 성가대 세미나가 있었다.

• 11월 27일 고 정기만 성도 장례, 29일 고 민정기 권사 장례 예배 집례를 할 계획이다.

성광장로교회 김광국 목사

• 제9회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속 실시하며, 98년도 추기 대심방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 정명신 집사 졸업 연주회가 11월 6일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으며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의 이유미양(이상조 집사 장녀)협연이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리틀 엔젤스 회관에서 있었다.

제일감리교회 차관식 목사

• 총 여선교회 야유회를 11월 3일 가평 양수리 발전소에서 가졌으며, 각자 도시락을 지참하였다.

• 박병희 집사가 지휘하는 CBS 소년 소녀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11월 7일 오후 5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으며, 전교인들이 동참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

• 11월 1일 저녁 각부서 100여명의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특별 찬양예배를 드렸으며 모든 성도들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

• 김재택 성도가 운영하는 광영세탁소를 온의동 급호 3차 아파트 단지내로 옮겼다. (261-5250)

• 임영숙집사께서 푸른농장 "청정계란"을 운영하고 있다.

소양성결교회 이원호 목사

• 추수감사예배-98년도 추수감사예배를 11월 8일 11시에 전 교인이 함께 드렸다.

• 본 교회 출판부에서는 담임목사 설교 테이프를 3부 예배 후에 판매하고 있다.

• 마하나임 축구단 친선 경기가 11월 1일 오후 4시 은혜장로교회와 공지천 운동장에서 있었다.

중앙성결교회 윤철중 목사

• 교회 부흥과 신앙성숙을 위한 365일 연속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 98년 3차 특별새벽기도회를 11월 22일까지 계속 실행하기로 하였다.

•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각 부서의 결산총회를 실시하고 있다.

신성감리교회 김창수 목사

• 외래강사설교 초빙-11월 1일 주일 낮 2부 예배에 황용하 목사님(센프란시스코 콩코드 한인교회 담임)이 설교하였으며, 3부 예배 홍순경 감리사님(미국 뉴저지 북부 한인교회 담임)이 설교하였다.

• 11월 1일 저녁 제3선교회 헌신예배에서 효자복지관 초롱이 합창단의 발표회가 있었다.

• 98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15일 드렸다.

동정

• 김영원 목사(우두감리교회)는 11월 2일 동부신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11월 3일 지방교역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 박상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고성에서 열리는 목사·장로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 이순훈 장로(동해동부교회)는 11월 1일 제일장로교회로 이명하였으며 11월 22일 투표를 거쳐 취임한다.

•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는 11월 5일 저녁 성광장로교회당에서 기독교연합회의 첫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찰선교를 위하여 도내 17개 경찰서를 순방하였다.

• 정상문 목사(동원감리교회)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춘천남지방 교역자 수련회를 인도하였다.

• 차관식 목사(제일감리교회)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속초대명콘도에서 열린 춘천남지방 교역자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김주환 목사(순복음 춘천교회)는 23일간 미국 교회 부흥회를 은혜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으며 전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표현

• 심령대 부흥회-춘천동지방 선교부 주최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갈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본 교회에서 심령대 부흥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독교연합회 김광국 회장

• 첫 임원회의-10월 23일 총회에서 선출된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은 11월 5일 성광장로교회에서 첫 임원회의를 갖고 주요사업계획 및 활력있는 운영등을 협의하였으며 교역자연합회와 성서화운동본부 등 관련조직과의 대화로 원활한 운영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목사

• 11월 9일 저녁부터 12일 저녁까지 춘천서지방 연합부흥회가 본교회에서 열렸다.

• 여 18·19·29지회는 11월 11일 신명회 사랑의 도시락 봉사를 하였다.

하였다.
• 이원호 목사(소양 성결교회)의 라디오 강단 설교가 CBS 93.7 MHz에서 주일밤 9시 35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된다.

• 윤철중 목사(중앙성결교회)는 교회가 선교헌금으로 건축한 멕시코 로사리도(하나님의 빛)교회 봉헌식에 참석차 11월 2일 남궁 수명 장로와 함께 출국 11월 12일 귀국하였다.

•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는 지난 2년 동안 동부연합회, 총부연합회, 서부연합회 감독 임기를 마치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께 감사를 드렸다.

• 박용수 목사(2군단 한빛교회)는 98년 12월 1일자로 중령으로 진급 예정이다.

본사방문

• 김석범 춘천경찰서 정보2계(중교담당)인사

• 박영희 장로(진주문장로교회)방문

• 전종률 기자(강원일보 문화부)방문

• 이현영 기자(강원도민일보 광고국)방문

• 장효덕 집사(은혜장로교회)인사

• 함영일 장로(새누리 장로교회)인사

• 맹영웅 장로(제일장로교회)방문

• 김준언 목사(서로사랑교회)방문

• 허광웅 장로(서부감리교회)방문

• 이영규 장로(석사감리교회)방문

• 태일삼 장로(여의도 순복음교회)방문

• 남정순 전도사(여의도 순복음교회)방문

• 김남철 장로(동부장로교회)방문

• 유근창 교수(강원대학)방문

세계 기독교 뉴스

인도 비하르주에서 선교보고

VISION 126 기도모임의 총무인 조은제 장로(베드로청회외과의원)일행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북인도 비하르주의 중심 도시인 파트나와 란치에서 기도세미나를 인도하였다.

비하르 주는 인구 1억으로서, 인도에서 가장 크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미전도 지역으로 '선교사의 무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파트나는 인구 200만에 교회 3개, 크리스찬 200명으로서 춘천 출신의 이영길(36세) 정은경(32세) 선교사 내외가 3년전에 들어가 사역하고 있다.

이들 부부선교사는 강원대학 출신으로 학창시절부터 성시화의 vision을 갖고 '기독교 학문 연구회' 및 '예수 가족'을 창립하였으며, 그 동역자들은 지금도 각자 처한 곳에서 목회자로, 학자로, 직장인으로 성시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으로서 파트나의 첫 거주자이며 97년 12월부터 98년 5월 까지 '순회 선교단'의 협력으로 현지에서 진행된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열어 훈련받은 학생들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금은 한국 선교사 10명(어린이 3명 포함), 네팔 형제 1명, 인도 자매 1명이 공동생활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이들 한국 선교사들은 춘천 '예수 가족'에서 파송하였으며, 성시화 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지난 8월 파송예배에서 선교 헌금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97년 10월, 매년 열리는 힌두 축제 "푸자 브레이크"기간에 맞춰 이영길 선교사와 현지 인도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기도세미나를 하였고 그때 강사진으로서 춘천성시화 운동본부의 조은제 장로와



98년 10월 20일 파트나시 기도세미나 모습

에 맞춰 영적 전투의 기도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파트나에서는 250명의 목회자와 대학생들이 2박3일간 집회를 하였는데, 힌두 우상 숭배의 축제 기간인 것을 감안한 조은제 장로의 '내가 거룩하니

회도 거룩하라'는 설교에 도전을 받아 회개와 헌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집회중 방언을 말하거나 병이 낫는 등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일어났었다. 란치에서는 인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였는데 약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비하르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후 파트나에서 온 연락에 의하면 세미나 참석자의 대부분이 계속 훈련을 받고 싶어하여 오는 12월에 그중 60명을 모아 home cell group 세미나를 하기로 하고 그 교제를 힌디어로 번역중이라고 하였다.

또 이들중 15명 정도를 선발하여 99년 1월~6월까지 제2차 '예수제자훈련학교' 교육을 시켜 인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vision을 품은 많은 인도인 사역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조은제 장로)

도문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유근창 집사
(순복음 춘천교회)

북방농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참석 차 10월 8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중국연변을 비롯한 몇 곳을 여행하였다. 1995년에 연변농학원과 자매결연을 맺기위하여 다녀오고 이곳이 두 번째 방문이기에 호기심도 별로 없는 여행이었다.

그러나 막상 3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이란 커다란 땅덩이가 격변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거리는 잘 정비되고 도로에는 자동차 홍수로 한국의 거리를 방불케 했다. 단지 한국과 좀 다르다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한데 엉키고 교통질서가 한국보다 문란하다고나 할까...

곳곳에 공사판이 벌어져 있고 사람들의 행보가 예전보다 더욱 활기차 보였다. 음식점을 비롯한接客업소도 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가정은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15억이 넘는 많은 인구와 거대한 땅덩어리가 이렇게 눈에 뜨이게 발전하는 저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다름 아닌 개방과 자유가 가져다 준 결과

라는 생각이 든다. 사유재산의 인정, 농지의 장기 사용권, 개인기업의 보장 등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부분적인 자유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값있는 자유는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수년 전만 해도 교회에 나가는 공직자는 당에서 파악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곤 하였는데 지금은 삼자교회(중국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이곳 저곳에 세워져서 북경시 내만 해도 500여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가 몇 개 된다고 한다. 또 지하교회(외국인은 전도지역이나 교회활동을 공공연하게 할 수 없음)는 수도하게 많다고 한다.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북경의 어느 쇼핑센터를 일행과 함께 들렀을 때 일이다. 조선족 직원 아가씨와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자 내가 목사님이 아니냐고 묻기에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에 나간다고 했더니 주위에 교회 나가는 집원을 소리쳐 불러모으며 이분이 교회에 나가시는 집사님이라고 반기며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려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당당하였다.

성경말씀에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나니 이제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사 60:15)라고 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15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비율이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통하여 모

든 종교가 말살 되었지만 특히 기독교의 불모지이다. 중국에서 외국인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교활동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려면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 또는 조선족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경말씀을 일깨워서 이들이 귀국 후에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우며 기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이다 보니 북녘땅을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볼 수 있는 곳도 우리에게만 관광지로 이름이 나 있다. 바로 도문교에서 두만강을 건너 바라보는 풍경이다. 바지를 무릎까지만 걷고도 건널 수 있는 얇은 두만강 발원지의 하류, 바리케이트 하나 없이 흰히 뿜린 다리를 보며 장벽없는 장벽이 한스러웠다.

기념품을 파는 조선족 아낙네의 이야기로는 탈북자는 신체의 일부를 철사로 꿰어 끌고 가고, 장마가 젖서 강이 범람할 때는 사체가 수 없이 떠 내려 온다는 끔찍한 소리를 들으며 항상 듣던 이야기이지만 북쪽을 바라보며 듣는 이야기인 지라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 했다. 같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것은 단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인지 아닌지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기아로 사망한 수는 무려 200만명이 넘는 것이라는 보도, 1997년의 수해로 북한의

총 식량 생산은 283만톤으로 추산하며 원조와 구입량을 감안해도 절대 부족량이 52만 2천톤이어서 또 얼마나 기아사망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보도 등 모두가 참혹한 소식이다. 동족의 굶주림으로 수백만이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수 만은 없다. 국수공창 차리는 데다 돈을 보내든지, 사람의 쌀 보내기에 힘조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도움을 주든지, 어떤 형태로건 돕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비참한 처지는 수해나 한발과 같은 천재(天災)가 아니고 세습적 공산주의에 의한 정치체제의 모순에 기인한 인재(人災)인 것이다.

기독교의 말살로 왜정치하에서도 면면히 명맥을 유지하던 기독교가 근간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이 진노하시어 징벌을 내리신 땅으로 변했다. 이러한 처지에서 북한에 대하여 1천 2백만 기독교인은 물질의 지원 이전에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은총과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현 강원대 교수)



중국쪽에서 바라본 도문교

직장선교운동

복음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도청신우회



박 무 일 장로
(강원도청 신우회장)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도청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직장신우회의 새바람을 생각하게 된다.

강원도청 600년에 비하면 갖태어난 것먹이와도 같은 도청 기독교신우회는 직장복음화의 새바람을 타고 90년 6월 27일 회원 43명이 뜻을 같이하여 창립하였으며 신앙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다. 도청의 변화는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참된 구조조정은 사람의 마음이 구조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행정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도청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공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조직은 물론이지만 이들 개인의 구조조정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구성원수에 120명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천직관이 마음속

깊이 간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는 사람은 직업에도 충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것이다.

도청 신우회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직장 내에서 회원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도청을 위하여 모든 직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성시화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91년에는 각시군의 신우회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삼천동 어린이회관에서 시군과 연합하여 선교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제 직장선교에 대한 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직장을 복음화하는 일을 통해 왜곡된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 가는 신우회가 되어야 하겠다.

도청 기독교 신우회는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 연령 층 구별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자체 신우회를 활성화하여 직장 동료의 교인화와 18시군의 신우회조직과 복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매년 행정부가 주관하여 98년 11월 4일 한국 기독교 공직자 선교연합회가 창립되었으며 함께 손을 잡고 강원도 전역의 모든 직장을 복음화 하는 일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청신우회를 비롯한 모든 직장 신우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고 모든 회원들이 변화되어 직장을 살리고 우리사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객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 신우회



채 능 수 집사
(춘천우체국 신우회장)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유치환님의 '행복'이란 시에 등장하는 시귀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체국'은 아직도 국민의 정서 속에 편지를 전하는 정겨운 장소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체국은 정보화 문화를 가꾸어 가는 정보통신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민의 종합 민원 서비스 창구이다.

편지나 소포 같은 우편물 송달 업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예금과 보험업무, 세세공과금 수납, 송금은 물론, 우편주문, 특산물 판매와 승차권, 항공권 판매 그리고 꽃, 과일 배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뜻을 같이하여 90년 9월 21일 우체국 신우회를 창립하고 청사내 10평 남짓한 업무협상실에서 직전 신우회

장이신 박상운 장로(소양성결교회)님을 비롯 12명의 회원들이 감격의 첫예배를 드린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3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선교 사역 지원 및 구제활동을 하는 신우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기적인 예배 외에도 우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모여 "초대교회와 현대인의 신앙"이란 주제로 자체 신앙 세미나를 하였으며 모임 때마다 간소한 애찬으로 사랑의 친교를 나눈다.

주요 사업으로 해외 오지 네팔에서 선교중인 양승민, 조천영, 부부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하여 매월 선교비를 지원하는 일을 9년째 계속해 오고 있으며 또한 불우 청소년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신우회의 발자취와 회원들의 신앙고백을 담은 선교회보를 정기적으로 발간 창구에 비치하여 고객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선교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춘천우체국 신우회는 21세기 선교를 지향,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여 직장을 복음화 하고 춘천을 성시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선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

"춘천우체국 신우회원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을 전하는 직무에 충실히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담대하게 전달하는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중보기도



기 정 희 집사
(춘천의료원 신경정신과장)

1997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OOWE 대회에서는 3살에서 16살까지의 어린이 100여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아공화국의 죄악, 특히 폭력에 대해 어른들에게만 기도하도록 맡기지 말고 어린이들이 중보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식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17세 리더의 제안에 100명의 어린이들은 일제히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죄악에 대해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테를 막아서서' 중보기도를 하였다. 이때, 이들이 기도하던 텐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강한 바람이 텐트안에 불었다.

A.D.2000 운동의 어린이 분과에서 주도하는 Children's Global Prayer Movement는 지금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베네수엘라 등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100만명의 어린이들이 중보기도의 군사로 일으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1998년 8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5만명의 어린이들이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역 라마단 기도 중, 한 어린이는 환상으로 모슬렘 어린이를 보았는데 곧 이어 "그들은 나를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아이는 울며 중보하였다.

미국 덴버의 Josh라는 교도생은 1997년 12월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기도모임을 세우는 vision을 받고 캠페인을 시작하여 벌써 10개의 모임을 세웠다.

1997년 12월 미국 켄터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아침에 학교 로-비에 모여 기도모임을 하던 학생들에게 14살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여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수십만의 십대들이 다양한 학교 내 기도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어린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미국 플로리다의 '우리 주님' 초등학교는 1993년 6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50명의 학생들이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린이들이 찬양 인도, 설교, 간증, 구원 초청,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동네 어른들 1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에서는 주일에 8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모여

3시간씩 중보기도를 하고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데, 이들이 어른들에게 다가가 "기도해 드릴까요?"하고 제안하면 대부분 기꺼이 기도를 받으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한다.

이 교회의 주일학교는 더이상 인형극, 풍선, 이야기, 게임 등의 시간이 아니라 '제자 훈련과 사역의 시간'이라고 담임 목사는 말한다.

1998년 교회간의 분열이 특징이었던 칠레에서는 처음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어린이들의 캠프에서는 새벽 2시부터 자발적인 기도모임이 계속되었다.

다음날 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갑자기 마리아라는 8살 소녀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불, 불"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은 회중들에게 마리아의 손을 엮도록 독려했고 회중들은 울며 쓰러지고 애원하며 방언하는 등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7살된 소녀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령이 거대한 활화산처럼 용솟음쳐 교회 전체를 뒤덮는 것을 보았다.

(다음호에 계속)

사진으로 본 성시화운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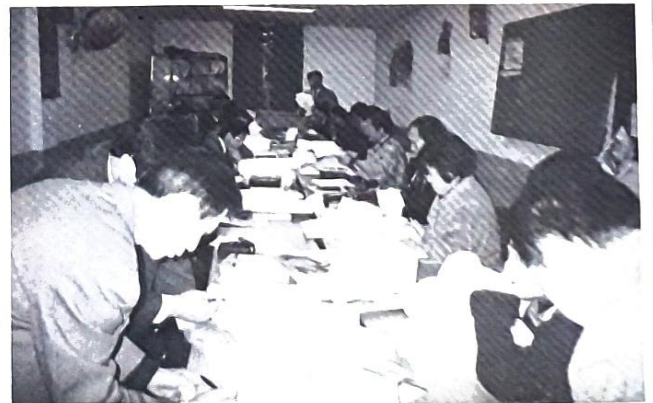
96년 10월 성시주관행사장 앞에선 행사주관 일꾼들



92년 10월 6일 성시주관 7일째 새벽지도회 모습(우두감리교회)



96년 10월 9일 기관장 기도모임 대표와 효자2동 동민대표 간담회



96년 12월 5일 직장선교대회 준비모임 장면



96년 12월 12일 직장선교대회 및 성탄축제 장면(강사 전가하 목사)



96년 12월 12일 성탄축제시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기관장들(선물보따리)



96년 12월 19일 흥천지역 복음화를 위한 방문예배(흥천관광호텔)



96년 12월 19일 춘천중앙로타리에 설치한 X-mas 트리 점화 장면

사진으로 본 성시화운동사



96년 12월 19일 점화한 X-mas 트리 모습



97년 1월 1일 나라와 민족위한 원단금식 수련회(햇빛회관)



97년 1월 2일 서울 햇빛회관에서 금식수련회 장면



97년 1월 6일 기관장 지도자 조찬기도모임 장면(강원대 태백관)



97년 1월 12일 올리클럽 가족모임



97년 1월 21일 전승태 장로 (춘천지검 검사장) 송별모임 기념촬영



97년 3월 18일 애중회(법조인)총회 및 특별성회모임



97년 3월 18일 애중회원들의 만찬장면

기독교 문화

詩

실명제 이후

그리움은 저멀리서
하얀 띠를 두르고 살고 있습니다.

푸른 물결속에서도
푸른 띠를 어디까지 떼내려 가야 하는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눈물은 아무때나
쏟아지는 폭포가 아니라
순간의 그림자와 부딪치는 시간에
흘러 내립니다.

가고 싶습니다.

손이지 않고 내마음을 가지는 곳으로
날개를 향하고 싶습니다.

바람불어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이별의 힘으로
서로 모르게 스치고 있습니다.

느낌은 덧없지만
그대여 나를 호명해주십시오.

가명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밝히시지요.

시인 김금분

- 춘천출생
- 월간문학 신인상 시 당선
-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춘천수향시낭송회, 풀무문학회원
- 시집 「화법전환」, 씨들름 시집 「사랑, 한통화도 안 되는 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戊寅冬冬 弟 白出詩 金金分

作品 시편 제18편 1절

김정복

- 대한민국 서예대전(예술의 전당)
- 현대 조형 서예 대전(예술의 전당)
-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 대전(조선일보 미술관)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예술의 전당)
- 예사랑 서예 학원장(현)
- 강원평생교육원, 법원, 미도파문화센터 출강(현)
- 춘천 기독교 미술인회 총무(현)
- 순복음 춘천교회 집사(현)



연합미술전시회는 아름다웠다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7일간)까지 기독교 미술인 회와 춘천교구 가톨릭 미술인 협회 작품전(34점)이 춘천시민회관 화랑에서 테이프를 끝냈다.

이번 전시회는 가톨릭과 기독교 미술인의 최초 합동 전시회라는 데서 그 의의가 컸으며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명을 주었다.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자들은 입을 모아 미술인들의 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미술인들의 연합이라서인지 더욱 아름다워보였다고 한다.

춘천교구장인 신부님은 기독교미술

인회와 가톨릭미술인회가 공동주최로 회원전을 열게 된 것을 참으로 반갑고 좋은일이 아닐수 없다고 하였으며 성서화운동본부장 조남진 장로님은 양 미술인회의 연합전을 축하하면서 사랑과 문화의 향기가 춘천성서회의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금번 연합전을 갖게 된것은 기독교 미술인회장 김정희 장로(춘천교대 명예교수)와 가톨릭 미술인 회장 전성자 교수가 지난해부터 의논해온 결과였으며 이들은 격년제로 합동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춘천시민회관
가톨릭·기독교미술인연합
전시회
춘천시민회관 전시실 1998.10.28(수) ~ 11.3(일)



성시역사기록관리

성시화 운동의 모습들

한편 전용태 장로, 최호자 권사 부부께서 성시일꾼 양성 목적으로 「더 복된 가정생활 세미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100여명의 성시요원을 배출하였으며, 춘천의 실업인 중 불신자를 대상으로 6월 8일 80여명의 회원과 더불어 「춘천 홀리클럽을 창립하시고 매주 수요일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전국적인 기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전 126 중보 기도모임」의 총무위원이신 이동현 목사님께서 춘천성시화의 불길을 뜨겁다는 소식을 듣고 '96년 5월 정기모임을 계획하였고, 춘천 YMCA에서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을 구성, 성시화의 맛볼을 지피게 되었으며, 7월 12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창립예배를 가진후부터는 매일 각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회를 실시 하였다.

한편 춘천성시화운동본부창립을 목적으로 기독교관장대표들과 교역자연합회 대표 목사님들 사이에 여러 차례 간담회와 만남을 통하여 춘천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연합체인 「춘천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9월 12일 석사감리교회에서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 임택창 목사님(석사감리교회)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기독교 연합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창립을 하게 되었다.

그해 9월 19일(목) 19:00에 드디어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역사적인 춘천성시화운동

본부의 창립기념예배 및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9월 정기집회」를 김선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소양성결교회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 모임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회장에는 임택창 목사님이 당연직으로 본부장에는 조남진 장로님이 추대되었다.

성시화의 작은 열매로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탄생과 더불어 첫 번째로 성시주간행사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를 마련 기독교관장 등 성시운동요원들이 매일 새벽 지정교회 새벽기도회 참석을 시작으로 9월 30일 순복음교회에서 「성경토론회」 개최,

10월 1일 오후4시 「기독교 연합회장 취임예배」와 오후5시 「헌판식」을 가졌으며, 강원대학 백령문화관에서 열린 「연합집회」에 홍정길 목사, 이영덕 장로, 김준곤 목사를 초청하였으며, 오인숙, 김형모 신생님의 「청소년을 위한 집회」 낮시간을 이용한 「전도여행」 활동 등 춘천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춘천성시화 운동사

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후에도 가정세미나 이수자 중심의 춘성회(春聖會) 아침기도모임이 강대 태백관(교수 식당)에서 매일 아침 06:30-08:30 사이에 실시되었고 성시화를 위한 금요기도모임은 「기관장 목요기도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내 중소교회 방문예배 및 직장신우회 방문예배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기관장

(검사장)님은 청주지점으로 진출전 97년 1월 22일까지 교회초청 간증,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특강, 주부대학, 어린이 전도협회, 군인 초청 간증,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특강, 주부대학, 군인 선교회 등에서 성시화의 씨앗을 심었고, 이범진 집사(안기부장)님은, 97년 12월 30일 본부로 가시기전까지 기관장 기도모임 대표로 활약하시면서 교회

초청, 순방예배와 「국가안보강연과 신앙 간증」을 통하여 성시화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양인평 장로(범원장)님은 98년 2월 23일 대전지방법원으로 전출되기 전까지 2년 3개월 동안 남다른 은사로 선교

단체를 결성하셨다. 애중회, 만나선 교회, 기독교인회, 춘고기독교인회, 강원청소년선교회 등을 창립하고 교회, 학교 등에서 간증을 통하여 춘천성시화의 씨앗을 뿌렸다.

이분들의 춘천성시화운동 열정과 그 동안의 헌신적인 사역은 먼 훗날 춘천도성을 하나님께로 사기에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한알의 밀알이 될 것이다.

1997년이후의 성시화운동은 기독교관장·지도자 기도모임과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그리고 홀리클럽 모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29일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창립 총회때에 「직장선교대회」를 열어 직장복음화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5월에는 국가사회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비상시국 구국기도모임을 계획하고 5월 21일 공지천 시민공원에서 1만여 성도와 시민이 운집하는 대집회(김홍도 목사 설교), 6월에는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2군단 한빛 교회에서 민관군이 함께 가졌으며, 같은해 9월에는 「시민초청대성회」를 9월 부터 10월 이틀동안 공지천 시민공원에서 약 1만5천여명의 시민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조용기 목사 설교)시행되었다.

10월에는 장애인 체육선교대회(10월 10일), 청소년을 위한 음악제(10월 18일)가 있었고, 11월에는 성시주간행사로 청소년 성가제(11월 15일) 청소년 축제(11월 19일) 이랜드 박성수 사장의 실업인선교대회(11월 21일)크리스 해리스 목사의 「내적치유 세미나」(11월 24일 ~ 11월 28일)가 있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한 1998년도에도 성시화기도모임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7일에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주간으로 . . .

(김영명 직장선교 연합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성시주관집회
비전126성시화기도모임 탄생은 역사적인 일

들의 개인전도 사역도 그 열매를 더해 갔다.

'96 성시화운동은 12월 12일 직장선교연합회를 통한 「성탄축제」로 제일감리교회에서 1,2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전가화 목사님의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는 메시지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동안 기관장들의 춘천성시화를 위한 주요 개인전도 사역을 살펴보면 전용태 장로

성시신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 광 전 기

전기공사업체(2층)

대표 김 철 호 집사

춘천시 후평동 678번지
☎ (0361)255-8545(주)
252-6345(야)

정각 자동차부분정비업소

대표 이 광 현 집사

춘천시 근화동 236-15
☎ (0361) 255-0081, 257-0681

금 광 제 화

29년 전통 수제화

대표 김 학 구 안수집사

춘천시 중앙로 2가 22-1
☎ (0361)254-4515

베드로정형외과병원

원장 조 은 제 장로

춘천시 효자2동 312-1
☎ (0361)253-5373, 253-5171
257-5170

시민광장 · 시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는 동선교회

춘천순복음교회(김주환 목사)는 지난 3년간 "성시형제회"를 만들어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을 향한 우정, 전도에 힘써왔다.

"성시형제회"는 5-6가정 단위로한 부부모임으로서 월1회 모임을 갖고 불신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복음전파는 물론 남편들이 믿게 되거나 평소 교회 일에 회피 또는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시형제회의 전도, 봉사운동은 점차 뜨겁게 발전하고 있었으나 IMF의 어려운 때를 맞아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교회는 시대에 적합한 조직

을 구상하여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동선교회(洞宣教會)를 조직하게 되었다.

동선교회는 춘천시의 24개 동을 대상으로 동마다 25명 정도의 성도를 배치하여 생활이 어려운 10가정을 선정, 지난 추석 절을 시작으로 매월 한 가정에 쌀 한포대(20kg)씩을 지원하고 청소와 빨래 밀반찬 등 각가정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각 선교회의 보고내용은 다양했으며 불우한 가정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예를들면, 부모의 가출 또는 질병으로 초등학교 손자들을 80세 할아버지가 돌보아야 하는 가정, 미화원(청소)아버지와 정신박약 어머니가 있는 가

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여 옷이 더러워도 빨래를 못하고 집안 청소를 못하는 딱한 형편이 가정, 실직과 부모로 생계곤란에 처했으나 영세만 혜택을 받지 못하여 끼니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다.

동선교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은 가정들은 기뻐하였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은 그리 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다.

각 동선교회

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심방한 가정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어두운 부분을 믿음으로 밝히고 그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씻어

주는 일은 주님의 명령이며 춘천성시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고 성도들은 말하고 있다.

(기정희 기자)



시사 용어 해설

◆ 엘리노(Elnino)

동태평양(아메리카대륙 서쪽)적도 인근의 수온이 바다와 대기 사이의 장시간에 걸친 순환 고리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에 폭풍 홍수 가뭄 저온 등 각종 재해를 일으키는 기후현상을 엘리노라 부른다.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혹은 남자아이를 뜻하는 엘니노는 1525년쯤에 페루의 어민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 라니냐

무역종이 평소보다 강해지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융승(솟아오름)하는 현상. 적도 부근의 동 태평양에서 평년보다 낮은 해수면도가 강화돼 나타난다. 더운 해수면 온도로 발생한 엘리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스페인어로 여자 아이를 의미한다.

◆ 환경 호르몬

생물체 내로 들어간 후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해

생물체의 생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생리 기능을 깨뜨리는 물질. DDT, PCB, 다이옥신 등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60여 종류에 달한다. TBT도 고등어나 대수리 등 바다 생물중 양컷의 몸에 수컷의 성기가 돋게 만들어 생식능력을 훼손시키는 환경 호르몬이다.

◆ Work out(기생 가치 회생 작업)

원래 검사 검증이라는 뜻. 은행과 기업이 협력해 기업의 재무 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업 구조 조정(Restructuring)과 개념이 비슷하다.

-기업의 수익성 구조를 분석 이익을 내게 하는 일련의 작업을 가리켜(Work out)이라고 한다.

◆ 부당 내부 거래

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대해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Big deal(빅 딜)

대규모 거래, 큰거래, 사업 교환(대기업간 사업 맞교환)을 말하며 "큰 도박"이라는 의미도 있다.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

세계각국의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2차대전 종전후 승전국들이 주도해 설립하였으며, 일종의 경제 국제 연합(UN), 지구촌 경제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다. 매년 각국 전강 체크를 한다. 회원국은 186개국. 재원은 2800억 \$.

자본은 한국 0.55%, 미국 18.25%, 독일 5.67%, 프랑스 5.1%, 영국 5.1% 순이며 직원은 2327명으로서 미국 598명(25.7%), 한국 17명(0.73%), 기타 최대주주는 미국이며 막강한 영향력을 (유일하게 비토 가능)가지고 있고 부총재는 항상 미국이 된다.

(김성욱 안수집사 · 성서신문위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지영철 성도
(대한인쇄기획대표)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았으며 더욱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부모님들도 무종교였으며 친척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이었고 할 일 많고 바쁜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98.5.6) 수요일 저녁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한렐루야 슈퍼마켓 부근 도로변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 임시로 주차하고 길을 가다가 차안에 있는 평소 호감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도청에 근무한 공무원 신분으로 신학대학원을 나와 목사가 된 이상적인 분이였다. 대화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을때 그는 나에게 예수 믿으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싫지가 않았고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망설임 없이 믿겠다고 확답을 하고 말았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난생 처음 참석하였는데 평소에 잘 아는 도청 공무원 집사님을 만나 외롭지 않았다. 첫날부터 시작한 새신자 예수님, 성령님 영생 그리고 예배드리

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란 사실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목사님과 그의 가족이 수요일 저녁예배후에 귀가하던 중 차안에서 다큰딸에게 과자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의사를 물었더니 반대하여 이번에는 부인에게 시장볼일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가족들이 슈퍼마켓에서 시장을 보는 동안 도로변 차 중에 있는 바로 그 시간 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날 그 시간 성령께서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생각에서 춘천성시화 회원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성경의 한자 풀이

完

~ 지붕, 집, 가정 + 元 시작, 최초 ⇒ 인 류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 집으로 창조가 완성됨. 창2:1 이리하여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園

土 흙 + 口 입김 + 人 두 사람 + 口 둘러싸 ⇒ 人 園 흙으로 만든 두 사람(k)이 있었던 곳. 에덴동산 특히, k는 아담(아)의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아)를 나타낸다.

婪

林 두 그루의 나무 + 女 여자 창3:3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기독교인 경영업소

춘천시 전역에 기독교인들의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안에서 서로 도우며 사랑을 확인합시다.
성시회원님들을 특별히 모실것이며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동원감리교회 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치
퀵마트(슈퍼업)	김금순 집사, 허근영 장로	241-3151	온의동 금호타운 앞
플러스 마트	김명숙 집사 엄기호 집사	241-7555 253-8484	춘천의료원 앞
미니스토아	강길민 집사, 이일준 집사	242-8528	팔호광장
자유시간	황태춘 집사, 김선옥 집사	262-2777	강대정문
신세기 유통	김은미 집사	242-8478	터미널 부근
이스라엘 마트	임창수 집사, 김영진 집사	241-1050	온의동 축협 뒤
인정슈퍼	김철수 집사, 유은선 집사	255-4484	춘천의료원 앞
멕시코 대리점	황계순 집사 권오운 권사	251-8589 256-5951	후평동
남촌닭갈비	홍석금 집사	254-6187	명동 닭갈비 골목
1차로 닭갈비	최경란 집사	256-3731	순복음교회 옆
양단농장	김시희 집사, 최동순 집사	261-4242	남산면
예배 쌀상회	조영목 집사, 정금숙 권사	252-4381	효제초동 옆
제비추리(식당)	심상무 집사, 김옥자 집사	253-1539	후평동
피자피아	목도균 집사	253-9595	퇴계동
베스킨라빈스	정금숙 성도	251-3199	퇴계동
한우마을	장관순 성도	256-3466	만전리
동원칼국수	원경희 성도	254-8195	효자약국 옆
퇴계갈비냉면	민순옥 성도	255-9292	강남병원 뒤
11월(식당)	이해일 성도, 김용희 권사	251-9645	덕두원
새우전 정육점	서재순 집사	257-8586	후평동
태양 정육점	조연구 성도	254-7201	법원 앞
두아리 횡집	이종숙 집사	255-2783	팔호광장
도배업	배춘자 집사	252-0873	도림병원 앞
도배업	원옥경 집사	252-6188	명동입구
1호 한복점	고희영 집사	256-0477	중앙시장 내
글루미아(웃)	김재자 성도	253-6188	명동입구
배비라(웃)	목상진 집사 이상례 집사	257-5795 253-5795	퇴계동
고맬모마(웃)	장현숙 성도	253-3282	퇴계동
길수유통	유길수 집사	255-3334	향교회관 앞
한복나라	조창배 집사	257-8530	중앙시장 내
마르카리(이름, 본수)	이병식 권사, 최문숙 집사	252-0749	강대정문 옆
아름다운(은, 예물)	이재옥 집사, 김하영 집사	257-5211	새명동 입구
라이카 사진관	김희경 성도	251-1833	한림대학매점
부동산	최숙인 성도	255-0947	
만화마을	이인배 집사 지연자 집사	241-1995 254-8347	춘천의료원 앞
미성세차장	이재성 집사	254-9538	후평동
영인인쇄소	심순자 집사	257-4975	춘여고 방학
나드리가	왕민숙 집사	252-6447	법원 앞
돌무늬 대리점	정인관 권사	256-4270-1	강대정문 앞
우리떡 방앗간	최유권 권사 권오숙 권사	257-5316 251-4516	황실부대 앞
창조기업(건설업)	유영호 집사, 김영이 집사	255-6235	동면방향
대인스프링(건설업)	박경순 성도	256-2424	이시윤송
알루미늄공사	김창경 집사	017-374-0414	
삼진주식회사	임창수 집사	242-6948	남춘천교회 맞은편
살생화재	황찬중 성도	011-364-4309	
현대해상 보험	김현숙 성도	018-246-2909	
기아자동차영업소	민경신 성도	242-8141 011-369-1447	후평동 노동부 사무소
예음음악학원	정은희 집사	255-4319 242-1093	강대후문
한샘음악학원	박광현 집사, 맹미혜 집사	252-0282	후평동 4거리
베스트80독서실	김주영 성도, 이덕선 집사	255-2339	
여로양행(화장품)	장철희 집사, 신장수 집사	256-4304	팔호광장

(황병찬 권사 · 성시신문위원)

진주문장로교회 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치
다슬칼국수	송인원 집사	261-0196	효자2동 320-3(조당청 맞은편)
신신가게	최희종 집사	252-5209	삼천동 156-1(시계탑에서 어린이회관쪽 100M)
광일전기	최종현 집사	255-6981	춘천시 효자1동 678-20
홍국냉면	채수미 집사	254-5311	사농동 99-22
남춘천영양소		019-345-0940	
강남오락실	이상복 성도	257-9680	효자2동 4동1번
유정세탁소	김동섭 성도	252-8541	효자2동 352-18 5/1
은호식당	유삼순 성도	252-1738	효자2동 352-18
김명호 클래식 (유명브랜드합인매장)	임순남 성도	256-0544	운교로타리 옆

(박영희 장로 · 성시신문위원)

서부감리교회 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치
네고향가든	정연근 장로	252-8484	우두동 명진학교 뒷편
삼성화물	서만순 장로	242-1234 011-363-1124	교동 163-7
"	한길홍 장로	252-0872 011-367-0872	"
"	이상덕 장로	257-2414 011-362-2414	"
"	이병수 집사	257-0892 011-369-2414	"
고려약국	방실순 집사	254-2538	소양로 2가(기화길골)
청진(일식)	박문규 집사	242-7458	퇴계동 906-1(퇴계역자갈목)
그린 달구잡	집오근 성도	241-9676	퇴계동 904-9
풀(양봉)	이상배 장로	244-4752	퇴계동(역자갈목)
동부화재	박내서 집사	251-9005 011-365-2423	요신동 무림빌딩 5층(요셉대리점)
피아노도사들	김기준 성도	255-9559 017-375-8873	교동 137번지(향교앞)
달려라 운동화	최근안 집사	254-5658	소양로2가 176-7(근화초교 앞)
단상백방앗간	진기원 성도	254-9540	소양로 2가(기화길골 입구)
전통진재	나승희 집사	254-6386	낙원동 국민은행 뒤
금호타이어	김철현 성도	254-1920	근화동(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자유시간(식품, 집화)	임영철 집사	253-5452	효자2동 668-3
유배라(유아용품)	김미옥 성도	251-4762	후평1동(세경3차APT 앞)
빔비 놀간비	김명신 권사	244-0964	후평1동(현대APT 맞은편)
삼광수비	이대순 집사	256-7710	소양로2가(기화길골 입구)
대우자동차부품	이교신 장로	242-1858	근화1구
만두도매	최규녀 집사	253-4688	효자1동(풍물시장내)
그린랜드(위생물수건)	고영학 집사	252-9250	옥천동 14-102
세아마트	강현옥 장로	257-0750	소양로1가 93-12(번개시장 앞)

(허광웅 장로 · 성시신문위원)

성시신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석 정 갈 비

갈비 · 불고기
등심 · 사브사브

* 대형 주차장 온비
* 차량출장형시대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거리 81
TEL. (0361)252-5221, 251-0287

강원대학 태백관 종가집

안심스테이크, 돈가스, 비프가스
한정식, 우거지갈비탕, 양송이버섯밥

* 한식부패(수, 목) - 4,000원
행사 주문부패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내 강원은행지점 3층
전화 (0361)256-7271

(합) 유성건설

대표 신 종 철

춘천시 석사동 696-3번지
☎ (0361)261-6661, 262-6662
H.P 011-369-1078

춘천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권 오 서

1백주년 기념성전 기공
(98년 10월 26일 오전 11시)
퇴계동부지 1만 6천평

춘천시 옥천동 73번지
☎ (0361)255-3561 ~ 4

기독교인 경영업소

석사감리교회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치
각시공방	황정희 성도	241-0444 256-9346	제일백화점 2층
강대안식당	최영자 집사	256-0204	강원대학 후문앞
건축업	황정섭 장로	254-7305	
경춘집 수리센터	이세근 집사	261-1510	병무청 건너편 샘터숯불갈비 3층
개명음악학원	이무식 장로	262-2999	교대앞 길 건너편
공정환 법무사무소	공정환 권사	(0366)434-1676	(홍천)등기소 앞
꽃게 해물탕	홍성일 집사	261-5253	석사동 사무소 맞은편
배·포도 파수원	호명훈 권사	261-9041	거두2리
공장주유소	이상우 집사	244-8282	8호광장 옆
그 옛날 숯불갈비	손세현 권사	261-1743	석사동
극동세탁소	김남석 성도	261-7087	석사동 극동APT 상가
극동슈퍼	양남덕 권사	261-5557	석사동 극동APT 상가
글로리 수입상품점	김지희 집사	262-9595	석사동 신우APT 상가
남양알로에 화장품	홍은숙 집사	255-2473	019-285-0936
늘오정육점	김근진 성도	257-4820	효자2동
늘푸른 베이커리	김근웅 성도	261-1083	석사동
다우등심	이숙희 성도	262-7748	강대정문 지나 교대쪽 석사APT오른쪽
대리연탄	남궁순녀 집사	261-4308	석사동사무소 앞 대천가전마트 3층
동경초밥	김진용 집사	257-7171	효자2동
동부화재	유민수 집사	243-7011	소양영업소, 요선동
동서건설	송용구 성도	251-1767	
동아부덕방	조기숙 집사	251-4622	후평동 1단지 앞
르까프	이소영 집사	255-3291 256-2817	강원은행 후평지점 옆
마슈(종합화장품)	양화보 집사	254-2359 242-9494	
만리카센터	김선자 성도	262-8001	석사동(애막골)
명금당	최남홍 권사	254-3373	브로드웨이 극장 옆
보람카센터	유진수 성도	255-7642	효자동 평화은행 대각선 건너편
봉의약국	김효순 집사	252-88.5	성심병원 옆 현대APT입구 건너편
부부담갈비	박영호 성도	251-6524	후평1동
삼부유동	이태수 권사	251-6602	근화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앞
삼성공인중개사무소	김창섭 집사	261-8484	석사초등학교 입구
삼팔공원	김정희 집사		
새내기(우)	김병기 성도	257-3040	
샘물 기름집	이광수 집사	252-5338	후평동 보안시장 내
사론 피아노 학원	성순주 권사	261-2305	석사동 교육대학 앞
서울유류납부보급소	최계순 집사	262-4974 262-5091	석사약국 옆 골목뒤(석사동쪽)
서울유류충전보급소	최준진 집사	254-3896	수협 백화점 뒤
석사방앗간	심영소 집사	261-7942	교육대학 정문 옆
성우유리	정진성 집사	251-8074	만천리
세알슈퍼	강영철 집사	261-6417	석사동 봉봉주유소 건너편
셀프크리닝	허 균 성도	253-1343	퇴계동
수정당(인쇄)	김명화 집사	251-6542	중앙로2가
승의어린이집	신상룡 장로	254-0164	시립문화관 서쪽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치
스마일 열쇠	강대영 성도	261-1304	석사동
신금사(보석)	황용학 권사	261-8833	석사G대리점 골목 중간
실로암 세탁소	유경종 집사	261-3095	석사동
실로암화장품	박양서 권사	261-4490	교대정문앞
알로에마임(주)	이판호 집사	242-2665	구향교회관 LG전자 2층
양계장	송기순 성도	262-3211	석사동
엘리트속셈학원	김정애 집사	253-3001	현대5차 APT상가내
(LG) 카센터	조영도 성도	243-4700	효제초등학교에서 우회전
(LG) 화재보험	박동일 성도	262-7043	석사동
여분네 집	유양수 집사		
연인과 연인	손세선 집사	261-5456	석사동
영광달갈비	이순자 집사	262-1359	석사동사무소 맞은편 LG전자 뒤
영광식당	이영자 집사	261-5094	석사동사무소 맞은편 LG전자 뒤
영광한의원	이용규 장로	251-2004	후평2동
에멕교역디자인	이광영 집사	254-6426	후평1동
에멕식당	안정옥 집사	257-0434	
왔다 이불방	강진수 집사	251-8535	죽림동
왕진 정육점	백미숙 성도	241-5329	옥천동
원예백화점	최돈식 집사	254-2932	후평동
유성보일러	유성근 성도	262-0682	석사동
은혜미용실	심숙자 집사	256-3482	후평동
인찌바이인찌	박옥례 집사	241-3090	시청쪽 코오롱스포츠파크 상가2층
이랜드	임정숙 성도	254-5448	명동 브로드웨이쪽
자연사슴목장	여명구 권사	262-0498	동산면
전국부동산	이희철 집사	261-1881	석사동
점보컴퓨터휴게실	송귀섭 집사	253-6493	후평동
제일생명	최남순 권사	252-2481	
제자독서실	김동원 집사	262-5210	교육대학 정문앞
중부오토프라자	이광춘 집사	261-2504	신촌리
진로종합식품	신경선 성도	254-3167	
청운슈퍼	박금옥 집사	252-7824	효자동
캐네이션	최우현 권사	256-5055	
태양약국	윤재선 성도	253-6462	석사동
동일가스	표창수 성도	251-3355	
퇴계주유소	이석주 성도	257-8182	퇴계11지구
푸른문구사	이정삼 성도	262-1807	석사동
푸른화장품대리점	최상노 성도	261-3060	석사동
포천이동왕갈비	노성규 집사	253-5285	퇴계동
한덕생명	박정자 집사	257-3700	동춘천영업소
한빛미디어	손은경 성도	262-0427	효자2동
현대세탁소	이인심 성도	252-6399	후평동
현대어린이집	이명숙 권사	254-0164	
현대피아노	이근옥 집사	252-8660	후평동
형제고물상	김덕중 성도	261-9504	석사동
호반담갈비	장주진 성도	261-6999	석사동 석사약국 골목 우측 200미터
황실지물포	심정은 집사	241-2336	후평2동
웨일리노레방	조옥선 집사	242-9879	약사동

(이영규장로 · 성시신문위원)

성경기억법 전문강사



대 일 삼 장로
 • 제일성경연구원
 • 영어강의 27년 경력
 • 영어교제 17권 저자
 •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정로
 • 제일성경연구원/강서제일의국어학원/제일학원
 • 말씀전체가 내속으로 들어오는 복된 비법!
 • T. (02)3661-6452, 3664-6120
 • T. (02)3661-6452, 3664-6120



남 정 순 찬양전도사
 • 협성대학교 음악과 졸업
 • 순복음신학교 졸업
 • 순복음 인천교회 지휘자 역임
 • 순복음 부평교회 지휘자 역임
 (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학교선교회 음악전도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찬양교실 강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로마하프 찬양단지도강사
 클로리아 교회음악 연구원 원장

구약에서 신약까지 중요내용 완전암기!

성경기억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이 체계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옴!



머리가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창세기1장에서 50장까지 1시간내 100% 암기법

문의 (02) 3661-6452 여의도 순복음 (02) 782-0159 갈보리 기도원 (0361)263-4466

•간중•

원장 이 평 해



- 김촌 갈보리 기도원
- 전 불교지도자
- 여의도순복음
- 선교연합회 감사

- ▶대상 : 말씀을 사모하는 자(사역자 큰 도움이 됨).
- ▶기간 : 신약 1개월, 구약 1개월
- ▶개강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학원선교회 매주 월, 화, 수(2박3일) 갈보리기도원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

성시신문을 만들며

춘천성시신문은 98년 9월 24일 오후 3시에 최초로 그 얼굴을 세상에 드러냈다.

우리는 역사적인 성시신문 발행을 위하여 8월부터 구상하고 편집에 들어가 필요한 원고와 사진을 수집하였다.

처음 손댄 작업이라 자신이 없었으며 더욱이 16면의 지면을 채우는데는 고충이 따랐다.

준비한 원고를 편집 인쇄하였는데 30%정도가 부족하였으며 그것을 메꾸고 수차례 교정을 보는 일로 전직원들은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9월 24일 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 예배에 때를 맞춰 나와야 하는데.....

불가능 하다는 인쇄소측의 전화는 청천벽력 같았다.

본부장의 부탁으로 시간내에 인쇄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마음은 불안했다.

직원들을 상주시켜 필요한 일을 협조하도록 하였다.

예배시간 세시간 전에 오랜 진통을 끝내고 세상을 보게 된 태아처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끈따끈한 세부의 신문이 먼저 도착했다.

칼라플란 옷을 입은 신문 그것은 내가 본 최초의 역사적인 성시신문이었

다.
열려의 마음은 일시에 사라지고 해냈다는 성취감같은 감정을 맛볼 수 있었다.

최초의 신문을 본 조남진 본부장은 잘 나왔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신문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회원들의 얼굴은 밝아졌고 축하의 말들이 오갔다.

9월 25일 사무실은 신문더미로 가득 찼으며 신문은 갈 곳을 재촉하는 듯 직원들의 마음은 분주했다.

밤이 늦도록 신문더미를 두르고 수신치를 기록하고 소포를 꾸러 교회와 선교회 타시도 및 춘천회원들의 가정으로 직배 또는 우송을 하였다.

일을 많이 하려면 과수원을 하라는 말이 있듯이 신문은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조용하던 사무실은 분주해지고 바빠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시신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회원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부)



도서출판·각종고급인쇄

대한인쇄기획

대표 지영철

240000-1618 춘천시 문교동 187-11번지
TEL 0361-244-5181-2 FAX 0361-244-5193

성시회원 10월 후원현황

성시회원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지극하신 정성으로 성시화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10월달 보내주신 후원금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 드리오니 해람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신문 발행사업은 회원님의 정성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 후원자

- 월 1,000원 : 왕순옥 김현철 안미정 이병연 안정숙
- 월 2,000원 : 성기은 박승희 고신희 신영숙 박기희 허순영 정유양 한희현
- 월 3,000원 : 홍순복 최경용 이봉자 임은경 이준택 정순녀 권순이 김영달 이영순
- 월 5,000원 : 이홍순 황병찬 정찬복 홍성운 박동환 오홍수 정용현 고신희 임성택
- 월 10,000원 : 신성균 천우석 한석용 조광수 윤진옥 이문자 서승달 명위식 남궁진 김석범 김남철 장기영 김원호(30,000) 지영철(40,000)
- 18,000원 : 이화자(합계)
- 월 20,000원 : 김태중 김철수 양인평 김영명 조충환 박영희
- 24,000원 : 이경자(합계)
- 월 30,000원 : 조남진 유근창 박숙영
- 월 100,000원 : 조은제

단체 후원자

- 월 20,000원 : 춘천택시(주) 직장선교연합회
- 월 50,000원 : 열린침례교회, 알로에 마임
- 월 500,000원 : 중앙성결교회
- 월 962,700원 : 순복음 춘천교회
- 120,000원 : 감리교 남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기타 후원자

- 성시신문광고 후원 (배계섭 장로) : 600,000원
- 성시신문광고 후원 (정각카인테리어 이광현 집사) : 100,000원
- 성시신문광고 후원 (금강제화 김학구 안수집사) : 100,000원
- 성시신문광고 후원 (석정갈비) : 300,000원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후원 (종가, 강원대학 태백관 식당 대표 정을집 집사) :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후원 (메드로 정형외과 병원장 조은제 장로) : 300,000원
- 성시신문광고 후원 (유성건설 대표 신종철 안수집사) : 500,000원
- 성시신문광고 후원 (중앙감리교회) : 1,000,000원 송금중에 있음
- 성시신문광고 후원 (성광전기 김철호 집사) : 송금중에 있음
- 농협 신우회 후원 (민경옥 장로) : 808,000원 -방문예배 헌금
- 한순수장로후원 : 100,000원
- 예수사랑교회후원 : 100,000원

안디옥기독교서적센터

각종서적·각종교회용품 판매

대표 홍광·유정로

춘천시 효자동 607-2(8호광장 부근·감대후문쪽)
☎ (0361)255-9379

주수 감사의 달



추수감사예배 드리는 농협

농협 강원지역분부는 하나님을 풍년 농사의 주인으로 믿고 10월22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풍년감사예배를 드렸다.

본부장 허선 장로와 농협 신우회(회장 민경옥 장로)회원들은 믿음으로 직장에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매년 풍년 농사에 대한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므로 진실로 농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과 농협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날 예배에는 춘천지역 모든 교회 목회자를 대표하는 기독교연합회장 윤철중 목사(중앙성결교회)와 한균 목사(평화감리교회 현 기독교 연합회 총무) 그외 여러 목사님들과 시·군 농협 대표 강원도의회 의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 그리고 기독교 기관장 지도자와

각 직장 선교회장 등 다수가 모여 함께 풍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예배였으며 직장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균 목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자"라는 설교를 통하여 21세기 식량난을 농협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농협이 활성화되기를 역설하였고 윤철중목사는 기도와 축도를 통하여 농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협과 농민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실 것을 축도하였으며 농협 신우회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였다.

농협 본부의 풍년 감사예배가 계속되고 춘천의 모든 직장에 널리 파급되어 춘천성시화가 앞당겨 질 수 있기를 참석자들은 소망하였다.

성시신문의 주인이 됩시다

지금 우리는 IMF한파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간에도 거룩한 춘천성시화를 위해 봉사하는 성시회원들의 끊이지 않는 후원으로 한국 최초의 성시신문 발행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보매체인 성시신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시신문 기사 보내주세요

원고종류

교회관련소식(목회자동정, 교회행사, 국내외선교, 각종뉴스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 강의, 간증, 추천도서 및 독후감, 시 그림, 만화, 만평, 사진, 생활상식 등

광 고

춘천시민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보내주실곳

원고접수기간 : 매월10일까지(월간신문)

주 소 : (우 :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춘천성시신문 제작부

☎(0361)256-1260~1

F A X : (0361)257-1260 PCS : 016-246-2752

PC통신ID : IGY5INGO(하이텔)

E-Mail : KEYHOLY @ channel i . net

성시신문은 아주 작은 소식도 감사히 받습니다.

※구독

성시신문 정기구독(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본 신문은 3,000부를 발행하며 무료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풍년감사예배를 드리는 기관단체장들



풍년감사 예배후만찬 모습